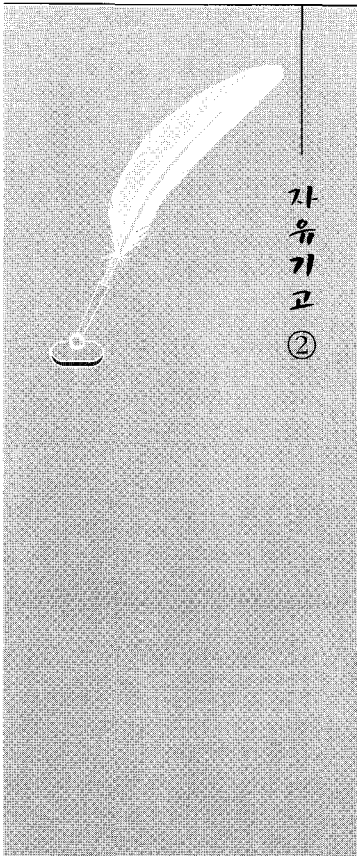


증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정부와 개방론자들은 협상을 일방적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기에 농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농민들의 한강 다리 점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농민생존권만큼 자영업자나 영업사원, 운송업자 등의 생존권과 직간접적 피해액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네 속담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다. 재벌 기업 회장들도, 노동자도, 자영업자와 식당

사장님도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권익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민주사회다.

그렇다면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아무리 죽어라 외치고 얻어맞고 피 흘려도, 생존권 차원의 요구마저 언론에 제대로 알려내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350만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필자가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다. **민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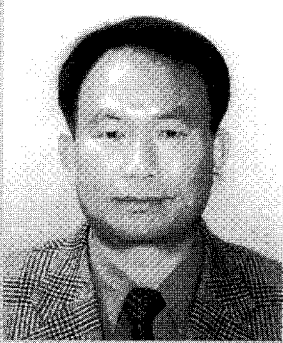
- 이 글은 영암신문 12월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농협 임원선거에 부처

1월말부터 전국 단위의 농협이 2004년도 결산 총회와 함께 이 감사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초 까지 대부분의 전국 농협이 대의원 이 · 감사 선거를 치루게 된다. 농민단체와 농협조합원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농협개혁을 외쳐 왔다. 그것은 자의에 의한 개혁의 의지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개혁과 제도적 모순을 바꾸자는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농협개혁은 을유년 을 한해 결산 총회를 필두로 자율에 의한 개혁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
유 병 운

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관행에 의해 나눠 먹기식 선출방법이다. 금권 타락선거와 친인척에 의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자율에 의한 개혁도 타의에 의한 개혁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의 조합원 교육의 부재로 농협은 조합직원들의 것으로 인식해 가고 있다.

그나마 농민단체의 농협개혁관련 교육은 대의원, 이사와 감사 대상 수준으로 그치다보니 조합원과 임원·직원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원칙인 “조직은 자발적이고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관리는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는 없어지고 만 것이다. 우린 다시한번 농협조직의 설립원칙을 인식하고 주인인 조합원이 하루빨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살림살이를 짜고 결산을 하는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의 역할을 생각하고 각종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와 살림살이 집행을 감시하는 감사 그리고, 총체적 조합의 살림꾼인 조합장의 임무를 생각할 때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선출해야 할 임원들은 단순히 한 잔의 술과 몇 푼의 돈, 정에 이끌려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농업농촌이 피폐해진 것은 다분히 정부 정책적 잘못도 있지만 우리 농민 조합원들이 술 한 잔에 돈 몇 푼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어리석음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을유년 새해부터 시작되는 농협 임원선거는 관행의 선거문화를 벗어던지고 정말로 농업농촌을 아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잘 살수 있는 농촌의 기틀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것을 기원한다. **한농연**